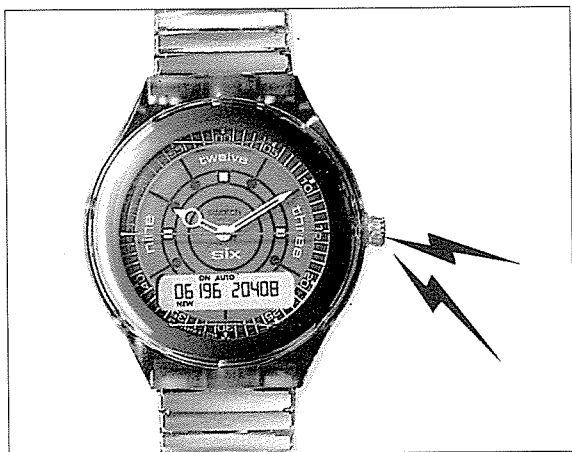


### ■ 서원텔레콤 '스왑치 비퍼'

다양한 색상과 디자인으로 젊은층의 호응이 높은 스왑치(Swatch)사의 시계에 무선호출기능이 첨가된 '스왑치 비퍼'는 서원텔레콤이 세계적인 패션 시계메이커인 스위스의 SMH사와 독점 판매 공급계약을 맺고 내놓은 손목 시계형 무선호출기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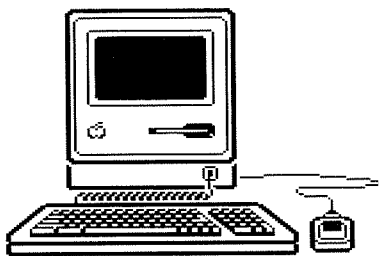


국내 공급을 맡은 서원텔레콤은 “삐삐, 이젠 손목에 찬다”는 광고문구를 통해 간편함과 새로움을 선호하는 신세대를 주 고객층으로 삼고 있다.

특수 와이어 안테나를 내장해 완벽한 수신율을 자랑하며 원형 아날로그 시계와 무선호출 기능을 복합체용한 이 제품은 시침부 하단에 위치한 2.1×0.6mm 크기의 LCD화면을 통해서 수신된 메시지를 확인할 수 있다. 31g의 중량을 지닌 초경량 시계형 무선호출기 '스왑치 비퍼'는 10개의 메모리 기능과 5개의 잠금기능, 자동 on/off, 무음기능 등을 내장하고 있다. 오스트리아산 최고급 가죽밴드를 채용해 6가지 디자인으로 선보일 이 제품의 예정 소비자 가격은 약 16만원으로 올 한해 10만대 정도를 국내에 공급할 계획이다.

### ■ 에이버미디어사 '에이버키 3'

가격은 좀 비싸지만 다양한 기능을 갖고 있는 외장형 PC-to-TV 컨버터, 에이버키 3 (AverKey3)은 200×110mm의 컴팩트한 크기를 갖고 있어 프리젠테이션을 위해 랩탑이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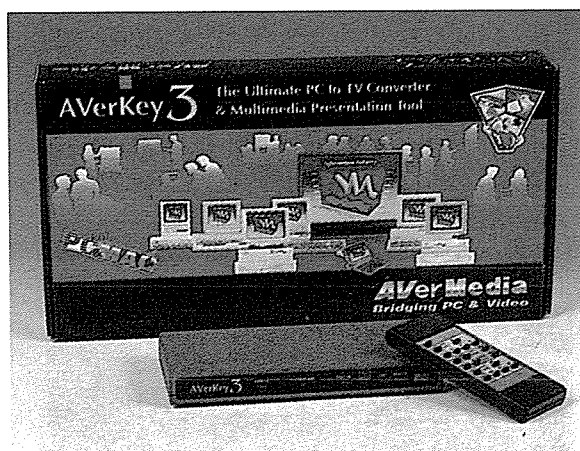
하드웨어

노트북에 직접 연결해 TV나 빔 프로젝터로 디스플레이할 수 있다

에이버키 3의 특징은 플러그 앤 플레이 방식을 지원하기 때문에 드라이버나 제어 소프트웨어가 없어 설치가 간편하고, 고장이 나도 원인 부위를 쉽게 찾아 낼 수 있는 장점이 있다. 또한 IBM 호환기종과 매킨토시를 지원하며, 연결 TV도 국내에서 사용하는 VHS방식과 유럽에서 사용하는

SCART방식을 모두 사용할 수 있다. 자동 모드 감지 (Auto mode detection)기능이 있어, 사용 중인 시스템이 IBM PC인지 매킨토시인지, 혹은 VHS방식인지 SCART방식인지 자동으로 감별하는 멀티플랫폼 시스템이기 때문이다. 에이버키 3은 또 리모컨으로 모든 기능을 조작할 수 있다. 실제 본체에는 조작키가 없어 아쉽기도 하지만 리모컨의 단추 기능이 쉽게 배열돼 있어 사용이 간편하며 화면을 정지시킨 후에 프레임 수를 줄일 수 있다.

PC의 데이터를 TV로 본다는 점 하나만으로도 신기한 제품이라 할 수 있지만, 에이버키 3에서 설정 가능한 해상도는 800×600으로 제한돼 있어 요즘같이 1024×768의 고해상도 모드가 일반화된 시점에서 보면 조금 답답한 면도 있을 것이다. 가격은 66만원



### ■ 엘렉스컴퓨터 파워 PC/486

애플 매킨토시 국내 총 공급원인 엘렉스컴퓨터는 최근 한대의 샘플 안에 2개의 CPU를 탑재한 파워PC/486을 출시, PC



시장의 일대 돌풍을 예고하고 있다.

신제품은 RISC방식의 파워 PC 601 칩과 486DX/266MHz를 동시에 장착하고 있다. 이로 인해 매킨토시 환경과 PC환경을 동시에 지원함으로써 듀얼 OS 시스템으로 매킨토시 OS와 도스/윈도우스 환경을 지원하게 된다. 특히 인텔 486DX/2 CPU를 그대로 탑재하여 매킨토시 환경을 거치지 않



소프트웨어



고 직접 PC환경을 지원하므로 486PC 본래의 기능을 완벽하게 활용할 수 있다.

매킨토시와 PC환경의 다양한 멀티미디어 응용 풀그림을 모두 활용할 수 있으며, 애플 CDi 플러스의 CD롬 드라이브가 기본 내장되고 사운드 블라스터 16보드가 장착되어 있다. 또한 MS-DOS 6.22 한글윈도우 3.1, 맥한글, 클라리스웍스 등 PC와 매킨토시용 소프트웨어와 다양한 CD롬 타이틀을 무상 제공한다. 신제품은 파워맥과 486DX/2의 두 대의 썸틀 역할을 하면서 모니터, 자판, 마우스, CD롬 드라이브, 하드디스크, 네트워크 등을 공유하여 설치공간 및 추가 비용을 절약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소비자가격은 2백68만원(부가세별도)

전자신문사, CD-ROM 매거진 '클릭'

전자신문사는 본격적인 멀티미디어 시대에 대비, 대화형 멀티미디어인 CD-ROM을 매체로 하는 CD-ROM 매거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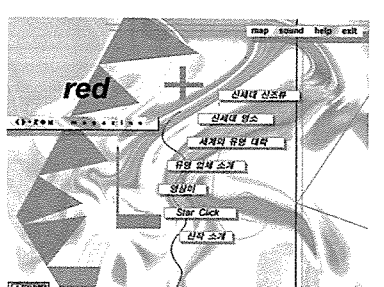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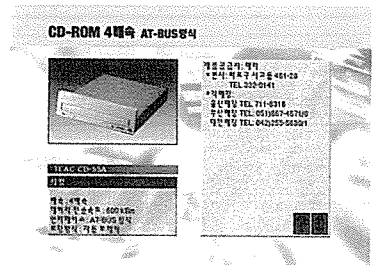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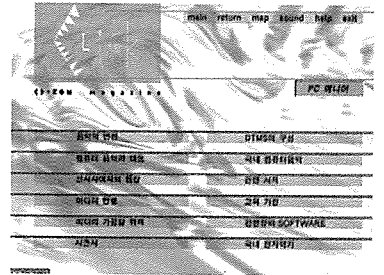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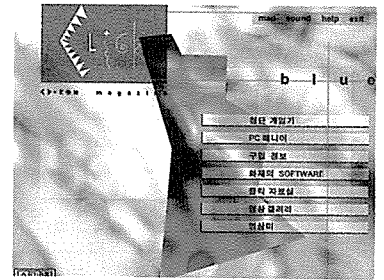
'클릭(CLICK)'을 지난 3월2일 창간했다. 격월간으로 발간될 클릭에는 독자층의 특성을 고려하여 '블루'와 '레드'의 CD롬 2장으로 구성, 약 900MB의 정보를 수록하고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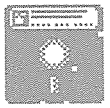
'블루'에는 첨단 게임기관련 특집과 함께 PC주변기기 구입 정보, 화제의 소프트웨어, 컴퓨터음악, 전자관련 통계자료 등의 컴퓨터 관련정보가 수록돼 있으며,

'레드'에는 '신세대명소', '신세대 신조류', '세계 유명대학 및 업체 소개', '영상 갤러리', '신인 연예인 소개', '영화, 음반, 비디오, 멀티미디어용 소프트웨어 등 신작 소개'와 같은 다양한 일반 정보가 제공된다.

그밖에 클릭의 각 코너 사이에 간간히 들어간 광고는 CD롬 잡지의 새로운 광고형태를 보여 준다. TV프로그램에 소개됐던 광고가 동영상으로 그대로 들어간 CF광고가 각 코너로 넘어갈 때 보여지도록 구성돼 있다.

클릭의 가장 큰 특징은 그동안 익히 들어왔던 멀티미디어 잡지라는 점이다. 기존의 잡지가 사진과 텍스트 위주로 구성되어 있던 것에 반해 동영상과 사운드 등의 살아있는 데





이터로 구성되어 있기 때문에 훨씬 재미있고, 생생한 정보를 접할 수 있다.

프린트 기능이라든가 하이퍼 텍스트 기능, 색인 기능 등이 없는 점이 다소 아쉽다. 사용환경은 IBM PC호환기종 486DX 이상, 기본메모리 4MB 이상이 며 가격은 2만7천원이다.



통신

■ 소니 일렉트로닉사 '디스크맨 PRD'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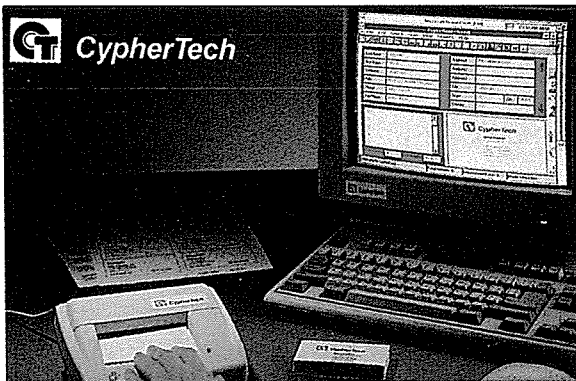
세련된 디자인의 CD-ROM 디스크맨은 오디오 플레이어겸 CD-ROM 드라이브로

사용할 수 있는 2배속 CD-ROM 드라이브이다.

디스크맨은 300KBPS의 전송률을 가지며 헤드폰잭과 서플, 리피트, 22개 트랙 프로그래밍을 포함한 10개의 오디오 플레이백 모드가 설정되어 있다. AC어댑터, 설치 소프트웨어를 포함해 5백49.95달러에 제공한다. 2개의 AA배터리를 사용하여 구동되는 이 CD-ROM의 사용시간은 1시간 반, 병렬포트로 연결해 사용하는 모델의 경우는 오디오 기능으로 사용할 때 하나의 배터리만으로도 최대 6시간을 사용할 수 있으며 PCMCIA 유닛을 사용하는 모델은 2시간 정도 사용가능하다.

■ CypherTech사 'CypherScan Business Card Scanner'

짧은 시간에 비즈니스카드(명함)의 내용을 읽어 PC에 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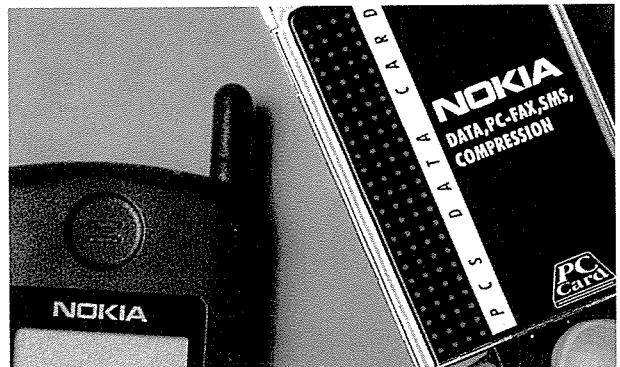
장할 수 있는 카드 판독기 사이퍼 스캔 비즈니스 카드 스캐너(CypherScan Business Card Scanner)는 바쁜 비즈니스맨들에게 유용한 제품이다.

이름, 주소, 전화번호의 필드를 자동으로 인식하며 일렉트로닉 카드 파일을 생성하도록 구성되어 있다. 또한 Sort가 가능하여 많은 시간을 들이지 않고도 데이터를 찾기가 용이하다. 메일링 레이블 프린트까지 자동적으로

해결되는 이 제품은 데이터베이스 등과 호환가능하다.

윈도즈 3.0 이상, 386 이상, 메모리 6BM의 환경에서 사용가능하며 가격은 3백99.95달러.

■ 노키아 PCMCIA 셀룰러 모뎀 'PC - 카드'



셀룰러 네트워크를 이용한 무선데이터 통신이 점차 인기를 더해 감에 따라 셀룰러 폰을 랩탑 컴퓨터에 연결시켜 데이터를 전송할 수 있는 몇가지 타입의 인터페이스가 나왔다. 그러나 이들 상품은 이용자들이 사용하는데 많은 불편이 따랐다. 특히 많은 전선과 케이블, 인터페이스 박스 등 복잡한 기기 구성과 주변장치들이 골치거리로 취급되고 있다. 이런 면에서 본다면 노키아사가 개발한 PCMCIA 셀룰러 모뎀은 기존 제품과는 판이한 제품으로 평가된다.

노키아의 PCMCIA 타입II 셀룰러 모뎀 카드는 AT&T 패러다임의 ETC (Enhanced Throughput Cellular) 프로토콜을 사용하고 있다. 일반 공중통신망용 모뎀을 셀룰러 네트워크에 적용할 경우 안정성이 없고 특히 빈번한 핸드 오프, 파워 레벨 명령, 셀룰러폰 통화장에 및 혼선 등이 데이터 전송에 막대한 피해를 준다. 그러나 AT&T의 ETC프로



토콜은 셀룰러 시스템으로 데이터를 전송할 때에도 이러한 문제점들을 제거하여 안전한 통신과 동시에 높은 처리 능력을 제공한다.

현재까지 나와있는 많은 무선 데이터 제품과 비교해 노키아의 PCMCIA 모뎀만이 갖고 있는 장점을 보면 첫째, 새 기능을 손쉽게 AT&T패러다임의 테크니컬 BBS에서 사용자의 PC카드에 다운로드할 수 있다. 둘째, 기능과 프로토콜 성능을 항상 최신의 것으로 갖출 수 있다. 셋째, 데이터 에러를 감소하거나 제거하는 16550 UART장치를 사용한다. 넷째, 시그널 강도나 메모리의 숫자와 같은 정보를 찾기 위해 전화로 물을 수 있고 이 정보를 컴퓨터 스크린에 디스플레이할 수 있다.

(PC카드 링크의 제품 사양)

- 케이블 길이 600mm
- 모뎀 커넥터 PCMCIA 25핀 아웃보드 커넥터
- 충전 커넥터....3.8mm DC잭
- 무게 80g
- 파워 DC5V(자동으로 공급됨)
- 전류 소모 3mA

### ■ 인터넷의 멀티미디어 서비스 'WWW' 제공

인터넷은 전 세계 1백45개국에서 3만여개 네트워크에 3백50만 호스트컴퓨터가 접속된 거대한 컴퓨터 통신망이다. 전 세계 사용자수는 약 3천만명 이상으로 추정되고 매년 3백% 정도의 이용 증가를 나타내고 있다.

국내에서도 하나만을 기점으로 교육전산망, 연구전산망 등이 인터넷과 접속되면서 그 이용이 증가하기 시작, 작년 12월 기준으로 국내의 인터넷 연결 호스트컴퓨터 수는 약 1만6천5백여대로 전체 사용자는 일반 개인을 포함, 약 2만여명에 달하는 것으로 추산되고 있다.

그러나 국내에서의 인터넷 서비스는 차별적으로 이루어져 왔다. 전용회선을 이용하는 개인사용자간에 서비스 내용이 서로 다르게 제공되어 왔기 때문이다. 즉 기관사용자들은 인터넷상에서 멀티미디어 정보를 제공받으면서 인터넷 서비스의 진수를 만끽한데 비해 일반 개인사용자들은 그



### FOCUS

러한 특혜를 누리지 못했던 것이다.

최근까지 개인사용자들은 명령어 입력방식에 의한 문자 위주의 인터넷 정보만을 조회할 수 있었다. 그러나 이제는 모뎀을 이용하는 개인사용자들도 기관사용자와 동일하게 인터넷상에서 멀티미디어 정보를 제공받을 수 있게 되었다. 일반인들에게 새롭게 제공되는 인터넷 멀티서비스를 이용하면 기존의 문서정보 이외에 음성정보,

그림정보, 동화상정보 등을 다양하게 받아 볼 수 있다. PC 통신을 통해 World Wide Web 정보를 제공함에 따라 나우콤의 경우 사용자의 80% 이상이 인터넷의 WWW를 사용하게 하는데 공헌을 했다고 볼 수 있다.

이와함께 원격접속(Telnet), 전자우편(Email), 파일전송(FTP), 유저네트뉴스(Usernet News) 등 기존의 인터넷 서비스도 문자가 아닌 GUI환경에서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다. 유닉스 명령어를 일일이 입력하던 방식에서 마우스를 이용해 원하는 정보로 들어가 누르기만 하면 된다. 인터넷 초보자들도 손쉽게 자신이 원하는 정보를 찾을 수 있는 환경이 마련된 셈이다.

인터넷 전문업체인 (주)아이네트기술은 지난 3월1일부터 모뎀을 사용하는 일반인을 대상으로 멀티미디어 인터넷 서비스를 제공하면서 본격적인 인터넷 대중화의 길을 열었다. 또한 나우콤의 나우누리과 에이텔의 포스서브에서도 멀티미디어 인터넷 서비스를 제공함에 따라 나우누리과 에이텔의 기존 국내 PC통신 사용자들도 인터넷 세계의 진수를 만끽할 수 있게 된 것이다. 한편 데이콤에서도 올해부터 인터넷 서비스를 강화한다는 방침인데 데이콤측은 모뎀을 사용하는 일반사용자가 아닌 전문 인터넷 사용자들에 대한 인터넷 서비스가 부족했다고 판단, 팩킷망서비스를 이용해 고급 정보를 제공할 계획이다.

서기 2000년경에는 인터넷을 사용하는 사람이 전 세계적으로 수억에 이를 전망이라고 한다. 일찍이 어떤 방법이나 수단을 통해서도 이처럼 많은 세계인이 묶여진 사실이 없음을 생각할 때 21세기 인터넷의 위상을 충분히 짐작할 수 있다. 따라서 국가 경쟁력을 올리는 차원에서라도 인터넷에 대한 정확한 이해와 사용이 절실하다 할 것이다. ①